

제 43 호 학기말 성적 계산하기

학기말 성적을 계산하기가 여간 신경쓰이지 않습니다. 시험, 숙제, 퀴즈, 학기 말 시험, 등등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학점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 뿐 아니라 어디에 비중을 주는가에 따라 학생들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학습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. 아래의 두 가지 예는 흔히 볼 수 있는 학점 계산법입니다.

계산법 A 계산법 B

숙제/퀴즈 10% 25%

시험 1 15% 25%

시험 2 25% 25%

학기말 시험 50% 25%

합 100% 100%

계산법 A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에 대한 희망을 최후까지 지니고 노력하게 합니다. 시험지를 채점하다보면 여러 종류의 학생들을 발견하게 되는 데, 처음에는 힘 들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잘하는 학생도 자주 있습니다. 순차적(sequential)보다는 전체적(global) 학습 스타일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. 그러나 중간 시험을 “개기면” 일단 맥이 빠지게 됩니다. 학기말 시험을 아무리 잘 봤자 겨우 C 학점을 받게 될테니 말입니다. 학생들이 비록 중간 시험을 못 봤지만 교육/수업 목표를 학기가 끝나기 전에 충분히 달성하였다면 C 학점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구제가 가능한 계산법 A는 “진보적 성적 계산법”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이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한 학기 내내 잘하다가, 예상치 않은 일로 (감기에 걸렸다거나, 집안에 일이 생겼다거나 해서) 학기 말 시험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. 특히 40 ~ 50%라는 큰 부담감은 불안감을 초래하고, 불안한 상태에서 학생들은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를 우려하는 교수님은 계산법 B를 선호합니다. 계산법 B 는 꾸준히 공부하고 차근 차근 자신의 성적을 “쌓아가는” 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. 특히 시간에 쫓기는 학기 말 시험 기간동안 여유를 가지게 해줍니다.

저는 오랫동안 두 가지 계산법을 매 학기 번갈아 가며 써왔습니다. 어느 계산법도 학생의 학습 성과도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. 그래서 저는 “복식형 성적 계산법”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. 학점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여 둘 중 더 높은 학점을 채택하여 성적표에 기입합니다. 원하시면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. 예전에는 한 가지 계산법으로 학점을 계산하기도 벅찼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컴퓨터가 있으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이 “복식형 성적 계산법”은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.

<<잔소리 코너>>

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.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장려하고 배려하는 교육이 학생 중심 교육입니다.

<<또 잔소리>>

이 것이나 저 것이나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하는 흑백논리는 구시대적입니다. 새 시대에는 이 것 저 것 둘 다 동시에 포용되는 열림의 시대입니다.

© 조벽, 1999